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303>

JCCT 2021-5-35

존 러스킨의 미학에서 ‘본다는 것’의 의미

The Meaning of Seeing in John Ruskin's Aesthetics

임 산

Shan Lim

요약 본고는 존 러스킨의 미학이론에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논한다. 러스킨에게 ‘본다는 것’은 도덕적 통찰력을 규정하는 핵심적 열쇠이다. 그렇기에 러스킨의 도덕적 사유에서 ‘보기’의 배움과 자연에서의 ‘보기’의 기쁨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현대 화가들』을 비롯하여 「할키온 이야기」, 「빛의 과학에 관하여」, 『프로세르피나』, 『프레테리타』 등 러스킨의 주요 강연과 텍스트들을 분석한다. 본론의 제1절에서는 러스킨의 도덕적 생태학의 구성요소인 기쁨, 사상, 보기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어서 제2절에서는 인간 존재의 도덕적 지각으로서의 보기 개념이 형성되는 이론적 논리를 추적한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자연과 신의 신비를 향한 배움으로서의 보기 개념을 이루는 보기의 방식과 기쁨의 미적 체험 사이의 조응을 논증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 과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본고는 존 러스킨의 ‘본다는 것’은 인간-자연-신의 위계적 구성의 우주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지각의 발전과 상응하는 생태적 감수성의 형성 요소임을 주장한다.

주요어 : 존 러스킨, 본다는 것, 도덕적 지각, 현대 화가들, 프레테리타, 생태적 감수성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meaning of seeing in John Ruskin's aesthetic theory. For Ruskin, seeing is the essential key to define moral insight.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 of sight and the delight from experience of seeing in nature within Ruskin's moral thought, I analyse Ruskin's various lectures and texts, including Modern Painters, The Story of Halcyon, Of the Science of Light, Proserpina, and Praeterita. The first section of the body investigates the relations among pleasure, thought, sight which compose Ruskin's moral ecology, and then the second section traces the theoretical logic formed the concept of seeing as moral perception of human being. The third section demonstrates correspondence between aesthetic experience of pleasure and the way of seeing as an education for the mystery of Nature and God. After these theoretical processes, this paper finally insists that seeing is the factor of formation of an ecological sensibility corresponding with development of moral perception generated with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human-nature-god.

Key words : John Ruskin, Seeing, Moral Perception, Modern Painters, Praeterita, Ecological Sensibility

*정회원, 동덕여자대학교, 부교수

접수일: 2021년 3월 29일, 수정완료일: 2021년 4월 23일
게재확정일: 2021년 5월 6일

Received: March 29, 2021 / Revised: April 23, 2021

Accepted: May 6, 2021

*Corresponding Author: slim2013@dongduk.ac.kr

Dept. of Curatorial Studies, Dongduk Women's Univ, Seoul
Korea

I. 서론: 연구의 배경

본고는 존 러스킨(John Ruskin)의 미학이론에서 '본다는 것(seeing)'이 어떤 의미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러스킨에게 '본다는 것'은 도덕적(moral) 통찰력을 규정하는 핵심적 열쇠이다. 그 근거는 우선 러스킨의 명저 『현대 화가들(Modern Painters)』에서 제시된다. 초기 저서에서부터 줄곧 러스킨은 자연을 동감의 마음으로 세심히 살피고 자연을 향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올바르게 조율된(...) 마음”을 지녀야 하며 그것은 “뜨렷하고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야” 한다는 믿음을 피력해 왔다.[1](이와 동일한 출처의 문헌은 이하 'W'로 표기함) 러스킨은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는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솔직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W 5:333).

이렇게 '본다는 것'과 도덕성을 연계지은 러스킨의 사유는 1872년에 옥스퍼드대학교에서 행한 강연 「할키온 이야기(The Story of Halcyon)」에서도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 러스킨은 한 마리 새를 막대기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어느 농부의 도덕적 상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명체의 삶에서 기쁨(delight)을 얻을 때, 곧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W 22:242). 즉 그 농부는 진정으로 새를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새를 보는 즐거움 또한 누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새뿐만 아니라 인간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그럴 때에만 인간의 선(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러스킨의 요지였다.

사실상 이러한 위계적인 구조에는 '본다는 것'의 의미를 두 개의 방향에서 접근하려는 러스킨의 입장이 담겨 있다. 그 하나는 눈이라는 기관에 의존하는 감각적 '보기'이다. 이것은 교육받지 못한 농부의 보기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도덕적 지각(moral perception)으로서의 '보기'이다. 이것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인간, 자연, 그리고 신으로 이루어진 체계의 상호 관계성을 인지하는 보기 방식이다. 여기서 러스킨이 강조하는 것은 배워서 인식하는 '보기'이다. 앞 단락에서 인용한 문장에서처럼, 기쁨과 보기는 동시에 발생한다. 그렇기에 그 둘은 러스킨에게는 “일반 법칙(General Law)”을

구성하는 동등한 부분으로서 위치한다.

이에 본고는 러스킨이 강조하는 '보기'의 교육과 자연에서의 '보기'의 기쁨이 그의 도덕적 사유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연에서 인간적 기쁨을 제공하는 원천은 무엇이고 그것이 '보기'와 맺는 관계는 무엇인지를 추적함으로써 '본다는 것'의 미학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곧, 인간은 도덕적 지각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토대를 둔 러스킨이 자신의 미학에서 '보기'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 탐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II. 본론

1. 도덕적 생태학의 구성 요소: 기쁨, 사상, 보기

러스킨의 미학은 자연에 대한 면밀한 시각적 관찰에 근거하여 형성한 도덕적 담론을 제시하면서, 미(美)에 대한 지각을 도덕적 행위라 믿었다.[2] 사실상 이는 도덕철학과 심리학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명확하게 구별 짓지 않았던 18세기 사상가들의 영향이다. 러스킨에게 그 '도덕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윤리적인 것과 모든 정신적 과정을 동시에 포괄한다.[3] 인간의 자연적 지각과 초자연적 계시를 서로 구별했던 러스킨은 인간의 도덕적 동인을 인간의 미학적 형성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지각'이라는 것이 훈육을 거치면 도덕적 실천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도덕적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러스킨은 도덕적 지각과 배움을 결합하여 특유의 도덕적 생태학 이론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덕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었다. 그 하나는 하향식(top-down) 도덕성이다. 이는 윤리적 의무에 대한 신적인 규율 체계라 할 수 있는 도덕성이다. 러스킨의 저서들 곳곳에서 언급되는 위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상향식(bottom-up) 도덕성이다. 이는 규범적인 욕구로서 경험되는 보기 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기쁨'으로 표명된다. 일종의 도덕적 충동에 가까워 보인다. 이 두 가지 도덕성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생태적 감수성을 작동시킨다는 면에서 둘은 공통된다.

도덕적 지각의 문제는 앞서 언급된 “할키온 이야기”에서 기쁨이라는 미적 감성과 연관된다. 러스킨의 이러

한 미학적 연구 방법론은 『현대 화가들』 제3권에 속한 “풍경의 도덕(The Moral of Landscape)”이라는 제목의 챕터에서도 확장되어 전개된다. 여기서 러스킨은 사상(thought), 쾌락(pleasure), “정신적 보기 혹은 2차적 보기”(W 5:355) 등의 역할을 논하였다. 특히 “사상은 자연 체험에서의 쾌락과 일체 관련이 없다”(W 5:355)는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와 윌터 스콧 경(Sir Walter Scott)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러스킨은 ‘사상’을 도덕적 지각의 촉진제의 역할로서 강조했다. 그래서 그것은 감각적 보기 혹은 ‘1차적 보기’보다 더욱 상위의 보기 형식으로 규정된다. 그에 비해 기쁨의 역할은 다소 모호하게 설명된다. 즉 러스킨은 기쁨이 사상의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으면서도, 동시에 사상은 도덕적 지각의 쾌에 종속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기쁨은 도덕적 지각의 정도를 측정하는 일종의 지표인 셈이다.

이와 유사하게, “풍경의 도덕”에서의 사상 개념 또한 기쁨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미묘하게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처럼 서술된다. 즉 사상은 기쁨을 양성하면서도 기쁨에 ‘의해’ 양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상은 인간 주체에게 하향식 도덕성을 부과하여 기쁨을 규제함으로써 인간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자연에 대해 주의 깊은 책무를 실천하도록 한다. “할키온 이야기”에서의 ‘보기’가 도덕성의 현전을 의미하였다면, “풍경의 도덕”에서 ‘보기’는 사상의 현전을 의미하였다.

2. 인간 존재의 도덕적 지각으로서의 ‘보기’

러스킨은 또한 인간적 지각의 진정한 지표는 ‘보기’ 행위의 선명함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보기’는 인간 존재 내에 적절하게 편재해 있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특질을 함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러스킨은 이러한 인간의 보기를 “도구적(instrumental)”인 비(非)인간의 보기와 대조한다. 그에게 비인간의 보기는 “기계론적(mechanistic)” 보기로서 은유되어 특징지어진다(W 22:208). 이는 곧 저급의 ‘보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본성의 순수와 균형을 이루는 “전적으로 정신적인 의식”(W 22:208)을 뜻하는 고급의, 인간의 시각과 대조되는 보기이다.

이러한 논점이 전개된 주요 장소들 가운데 한 곳으로는 『현대 화가들』 제2권의 “활력미(Vital Beauty)” 챕터가 있다. 여기서 러스킨은 기계론적 보기와 동물의

보기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어떻게 “동물적 형태의 미가 도덕적이거나 지성적인 덕성의 양에 정확히 비례하는지”(W 4:160)를 논하면서, “표현되는 감성과 영혼의 덕성을 거치는 신체 요소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광학적 도구로서 보이는 눈”(W 4:158)을 지닌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위계적 체계의 맨 아래에 두어 평가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론적 특성에 대해 러스킨이 지녔던 불쾌한 견해를 데카르트의 입장(즉 동물들은 필연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기계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독해하는 입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4] 기계론적인 면에서 ‘본다는 것’은 비인간 세계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도덕적 지각을 성취하지 못하여 새를 죽음에 이르게 한 농부 같은 사람들의 ‘감각적 보기’를 특징짓는다. 그러므로 비인간의 일반적 특징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감각적 보기’의 특징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계론적 시각이 러스킨이 인간에 의해 시도되는 비인간 세계와의 도구적 매개를 비판하는데 동원되었던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그 ‘매개’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에게 비인간의 시각의 예민함을 제공한다. 물론 이 또한 러스킨이 도덕적으로 문제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러스킨의 기계론적 시각 메타포는 비인간 삶에 대한 기계론적 관점보다는 테크놀로지의 사용에 관한 의구심과 더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련하는 러스킨의 태도는 그의 식물학 연구 저서 『프로세르피나(Proserpina)』에서 명쾌하게 표명되었다. 러스킨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예외를 말한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꽃이 인간의 눈을 가진 인간 피조물에 의해서도, 거미의 눈을 가진 거미에 의해서도 보인다는 원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화가가 종종 거미와 놀이 하듯이, (...) 나는 안경을 낀다.”(W 25:469)

러스킨의 이 말은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가 이따금 테크놀로지 수단들을 통해서 “거미와 놀이”하기를 원하는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반적 ‘원칙으로서’ 우리는 기술의 매개를 자제해야 하고, 도덕적 지각과 동물의 시각적 예민함을 상호배타적

인 것으로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 러스킨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동물들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계량적 시각”(W 22:201)의 수학적 정확성을 필요로 한다. 동물들은 상호 포식(捕食)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측정 능력은 도덕적 동인으로서 존재하는 인간의 그것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다. 인간 존재는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비록 예술가들에게는 때때로 사용될지라도) 인간의 삶에서 그러한 동물의 시각적 정확성이 필연적으로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러스킨이 이렇게 동물의 시각적 정확성을 실험하는 기계론적 과정들과 인간의 시각을 서로 비교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한 도덕적 침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인간 세계에서 도덕적 시각을 ‘감각적 보기’와 구별하는 원칙적인 수단으로서 러스킨이 행한 기술적 매개의 보기에 대한 공격은, 자연에 대한 인위적 간섭과 도덕적 퇴보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함의한다. 즉 러스킨에게 기술의 매개는 정신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러스킨의 관점에서, “인간 마음에 올바르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모든 섬세함은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의 육안’에게로 향하는 것이지, 현미경의 도움이나 매개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W 33:346) 과학자 토마스 헨리 헉슬리(Thomas Henry Huxley)가 러스킨에게 눈은 “모두 기계적이다”(W 22:194)라고 말했을 때, 러스킨은 “본다는 것은 온전히 정신적인 현상이다”(W 22:195)라고 응대한다. 인간에게서, “논증과 검사를 요구하는 수학적 마음에서 바라보는 눈의 보기는 (...) 추상적인 정리(定理)를 지닌 물질적 사물들에 몰두한다.”(W 23:212) 즉 수학적 육안의 보기는 신중하고,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사물들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논증과 검사”, 그리고 “추상적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덕적 시각은 생태적 맥락 내에서 존재들을 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러스킨의 말을 좀 더 살펴보자.

“본다는 것은 온전히 정신적인 현상이다. 정확하게, 오직 그렇게 정의되어야 한다. 당신이 그 말을 이해할 때, ‘빛이 있으라’는 언명은 시각의 질서만큼이나 지성의 질서와 다름 아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사물들로부터

터 (반짝거리지 않은 별들로부터 지각될 수 없는 대지에 이르는) 볼 수 없는 사물에게 미치는 단지 기계적 영향의 변화에 대한 약속이다. 말하건대, 그 변화는 인간 눈에 비치는 태양과 달의 영광에로의 맹목의 떨림으로서, 심원한 진리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선한 진리의 몫의 변화로서, 우리에게 작용한다.”(W 22:195)

이렇게 러스킨에게 ‘본다는 것’은 도덕적 시각(“심원한 진리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 감수성을 창조한다. 강연집 『독수리의 둥지(The Eagle's Nest)』(1822)에 실린 일곱 번째 주제 「빛의 과학에 관하여(Of the Science of Light)」에서, 러스킨은 ‘본다는 것’의 정신적 본질은 도덕적 시각이라고 논증한다. 그에 따르면 “빛이 있으라(fit lux)”는 곧 “생명이 있으라”이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W 22:194) 보기 때문이다. 눈 그 자체는 “그것의 생기”(W 22:194)로 존재하므로, 진정한 시각적 보기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기계적인” 혹은 감각기관으로서의 눈의 작동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인 것이다.

러스킨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Unto this Last)』에서 성서의 문장을 인용하면서(W 22:199), 자신의 시각적 보기 개념을 구현한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마태복음』 6:22)라는 구절에 대한 러스킨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시각의 원천이 신(“등불”)과 인간(“몸”), 두 가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 체계와 신적 체계 사이의 생태적 연결은 물론이고 시각적 보기와 “기계적” 보기 사이, 그리고 인간의 보기와 비인간의 보기 사이의 긴장을 확인하고 그 둘 사이의 관계성을 특징짓는다.

러스킨은 이렇게 본다는 것의 문제를 빛과 지성의 질서와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그의 의도 내에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물들과 우리의 타고난 보기의 능력 사이의 유기적이고 정신적인 관계성이 자리한다. 즉 러스킨에게 ‘빛’은 단순히 신의 영광의 선물만이 아니다. 빛은 도덕적인 보기에서 생겨난다. 모든 하위의 존재들은 빛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는 어두움에 살게 된다. 인간 존재는 도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감각적 보기”가 비인간의 보기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보기 능력은 생태적

으로 지각할 수 있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의 위대함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생명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도덕적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이다.

3. 자연과 신의 신비를 향한 배움으로서의 ‘보기’

앞에서 언급했던, 새를 죽인 농부의 사례에서 러스킨은 기쁨이 도덕적 지각과 동시에 생겨난다고 제안한 바 있다.(W 22:242) 즐거움은 감각적 보기와 도덕적 지각으로부터 분리된 보기 방식이 아니다. 이러한 러스킨의 입장은 1885년부터 1889년에 집필된 그의 자서전 『프레테리타(Praeterita)』에서도 드러난다. 러스킨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체험을 기술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이 심오한 집중과 고요한 관찰의 체험으로부터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풍경의 도덕”과 “헬키온 이야기”가 러스킨의 교육적 계획의 일부를 상징하는 저술이라고 한다면, 『프레테리타』는 스스로를 어떻게 교육해 왔는지 그 교육적 실천의 역사를 대표하는 자료라고 비교해 말할 수 있다. 러스킨은 몰두한 상태에서의 보기와 기쁨의 과정을, 성숙한 도덕적 지각의 단계에 아직 오르지 못했던 어렸을 때의 기계적 눈의 보기와 연결하여 그 신비로움을 풀어보려고 했다.

러스킨의 후기 저술에 해당하는 『프레테리타』에서는 도덕적 지각이 하향식 도덕적 구조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쁨은 그런 도덕적 지각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더 이상 아니었다. 이런 식의 사유의 형태는 도덕적 지각이 기쁨처럼 상향식 도덕적 충동으로 간주되지 않게 한다. 러스킨의 자서전적 저술은 이렇게 도덕적 지각의 성숙한 실천에 대해 언급하는데, 다음의 글은 기쁨과 쾌락, 그리고 “열광적인 흥분의 간격”(W 35:20)을 동반한 ‘보기’라는 신의 선물을 키운 자신의 체험들을 설명해준다.

“나는 여러 광장들을 거닐거나 집안 카펫의 색들을 비교하면서 만족스럽게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마루의 나무에 나있는 점들을 들여다보거나 앞집 건물의 벽돌 수를 새기도 했고, 집 앞에 세워진 철제 우편함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통을 채우면서 열광적인 흥분의 간격들을 함께 느꼈다.”(W 35:20)

세심한 주의를 동반한 러스킨의 변하지 않는 관찰 습관은 황홀, 기쁨, 쾌락의 체험과 다름 아니다. 그것은

예리함은 물론이고 명상적인 몰두(meditative absorption)라는 특징을 지닌 러스킨의 남다른 보기 능력의 기초가 되었다. 『The Darkening Glass: A Portrait of Ruskin’s Genius』의 저자 로젠버그(John D. Rosenberg)는 러스킨의 “명상적인 몰두”를 위즈워스의 “현명한 수동성(wise passiveness)”과 연관 지었다.[5] 자연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자기교육을 통해 지식을 탐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감각 세계를 활짝 열고 꿈의 세계로 그 자연을 수용하려는 태도의 가치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그것에서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John Keats)의 “소극적 능력(negative capability)” 개념을 엿보기도 했는데, 눈이 본 것을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체험에 복종하는 능력을 러스킨의 “명상적 몰두”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이다.(W 34:343)

그런데 그렇게 몰두하면서 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그 “수동성”은 게으름을 꾸짖는 러스킨 자신의 엄격한 자기훈육에 어긋날 수 있다. 러스킨은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하면서, “무언가를 주시할 때의 인내, 감정의 신중함은 나중에 근면함이 되어 나의 분석력을 만들었는데, 그것 말고 어떤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W 35:51)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아무리 자신이 지닌 세밀한 관찰이라는 재능을 자랑스럽게 인식하였던 러스킨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근면함”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토대로 그 재능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했다. 어린 시절의 명상적 몰두가 만들어 주었던 기쁨은 신비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러스킨은 『프레테리타』에서 자신의 보기 능력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진정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은 곧 세상의 신비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이해라고 주장하게 된다. 특히 러스킨은 터너의 ‘구성’ 법칙들을 열심히 익히고 ‘구성’ 개념을 환경에서의 역동적 프로세스와 상호작용적 요소로 다루었다.[6] 그리하여 결국 터너의 예술을 구성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라는 인식에 이른다.(W 35:310) 더 나아가, 구성에 있어서 자연의 손은 바로 신의 손이고, 복잡한 자연을 구성하는 상호 연관된 요소들을 지각하는 것은 위즈워스의 “철학적 마음(philosophic mind)”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러스킨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경험한 몰두의 보기 방식을 의식적으로 재구축하고 ‘기쁨’의 개념을 신비화

함으로써, 하향식 구조를 강조하며 상향식 충동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서사는 러스킨의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 인간의 구성 법칙의 역학을 깨달은 어린 시절을 보낸 후, 그러한 법칙의 기초가 되는 자연과 신의 섬세한 법칙의 구현이 곧 성숙한 철학적 마음에 조응하는 도덕적 지각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III.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러스킨에게 ‘본다는 것’은 그의 도덕적 생태학의 관점으로부터 형성된 도덕적 지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러스킨의 여러 저술들은 그의 ‘보기’의 모델을 위계적인 도덕성 유형 두 가지로 나누어 다루었다. 물론 이러한 흔적은 눈을 탁월한 진리의 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던 19세기 미학이론의 노력들과 연루된다.[7] 이런 학문적 흐름에 영향을 끼친 러스킨의 대표적인 생각은 『현대 화가들』 제3권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인간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언가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았던 것을 소박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수 백 명의 사람들은 사유할 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수 천 명의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사유할 수 있다. 명료하게 보는 것이 시이고 예언이고 종교이다. 이들 모두는 하나이다.”(W 5:333)

이렇게 러스킨은 상상력이 곧 ‘보기’라고, 예언의 진리로서 보았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환상적이고 목시론적인 힘이라고 강조하였다.[8] 또한 러스킨에게 ‘본다는 것’은 하나의 훈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러스킨은 특별한 강도로 스스로의 ‘보기’를 교육해야 했다. 자연은 그의 시각적 주목의 최우선 대상이었다. ‘자연’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지각해야하는지에 대한 그의 연구 지평은, 러스킨을 가리켜 자연에 대한 ‘보기’의 문제를 다룬 최초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하는 것이 결코 과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해준다. 러스킨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연의 가르침을 익히기 위해 자신의 눈과 손을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

그러므로 러스킨에게 ‘본다는 것’은 보기(sight)와 통찰(insight)이 겹쳐있는 단일한 본능적 행동으로서, 각각하는 사람에게 도덕적 책임감을 전한다. 이에 예술은 그 감상자에게 지각의 가능성에 대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과업을 지닌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가르쳐야 하는, 즉 예술과 자연에 대한 해석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다. 러스킨은, “신이 제공한 눈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에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은 무언가를 보는 것이다”(W 6:483)라고 하였다. 이렇게 러스킨에게 ‘본다는 것’은 자연, 인간 세상, 그리고 신적 영역으로 구성되는 위계적 우주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지각의 발전에 상응하는 생태적 감수성의 형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John Ruskin, *The Works of John Ruskin*, 39 Vols., Library Edition, London: George Allen, 1903-12, 4:147.
- [2] George P. Landow, *Aesthetic and Critical Theory of John Ruski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158
- [3] David M. Craig, *John Ruskin and Ethics of Consumption*,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6, p.370
- [4] Peter Marshall, *Nature's Wen: An Exploration of Ecological Thinking*, Toronto: Simon & Schuster, 1992, pp.187-89.
- [5] John D. Rosenberg, *The Darkening Glass: A Portrait of Ruskin's Geniu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1.
- [6] Shan Lim, “John Ruskin's Study of Nature,”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6, No.2, 2020, pp.300-301.
- [7] Carol T. Christ and John O. Jordan, “Introduction,” *Victorian Literature and the Victorian Visual Imagin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8] Raymond E. Fitch, *The Poison Sky: Myth and Apocalypse in Ruskin*, London and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1982, p.29.
- [9] Susan Phelps Gordon, “Heartsight Deep as Eyesight: Ruskin's Aspirations for Modern Art,” in Harriet Whelchel (ed.), *John Ruskin and the Victorian Eye*, New York: Abrams, 1993, p.126.